

농산물값 오르는데…농민은 ‘빈주머니’

연 평균 생산비 3.9% 폭등…물가상승율의 2배 육박
쌀 28%·배추 45% 오르고 위탁영농비 500% 치솟아
“산지가, 소비자가보다 훨씬 낮아…물가 주범 억울”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농산물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는 가운데 정작 농민들의 통장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비료·농약·종묘 등 주요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폭등해 농업 생산비가 소비자물가를 뛰어넘어 급증하는 반면 산지 판매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갈수록 비싼 값에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한편, 농민들은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전남 지역 농민들은 일년 농사지어도 “최저임금도 못 번다”고 호소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농산물 생산비는 연평균 3.9%씩 상승해 일반 물가상승률(2.3%)의 1.7배에 달했다. 쌀 생산비는 2015년 69만 원에서 2024년 88만 원으로 28% 늘었고, 배추는 45%, 마늘은 41% 급증했

다. 특히 농촌의 인력난으로 위탁영농비는 500% 이상 뛰었다.

반면 농민의 실제 영농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농가 총소득은 2014년 3495만 원에서 2024년 5060만 원으로 45% 늘었지만, 순수한 농업소득만 보면 같은 기간 1030만 원에서 957만 원으로 26% 감소했다. 겸업과 보조금 덕에 통계상 ‘소득 증대’가 잡히는 것일 뿐, 노동 대가는 시간당 912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정작 체감 소비자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산지에서 도매시장, 중간 유통업자, 소매상으로 이어지는 단계마다 운송비·포장비·보관비가 붙고, 각 단계의 마진이 중첩되는 구조에 물류비와 인건비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정작 농민에게는 극히 일부의 소득만 돌아가는 것이다.

농협경제지주와 농산물 유통정보 KAMIAS 자

료에 따르면 올해 상추 1kg 기준 연 산지판매가는 1256원, 소비자가는 1만3090원(100g기준 1309원)이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 6년간은 산지가 평균 1266원, 소비자가 평균은 1만3100원대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무안에서 주로 생산이 이뤄지는 마늘과 양파 역시 차이가 컸다.

마늘은 산지공판장가격이 올해 4262원, 소비자가는 1만1298원으로 2.65배 차이가 났다.

양파는 산지가 688원, 소비자가가 2352원으로 3.42배 차이가 나고 있다.

또 ‘금배추’, ‘애플 플레이션’과 같은 말이 무색하게도 이들 작물을 키우는 농민에게도 정작 돌아가는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황이 좋지 않을 경우 대형유통업체에서는 물량을 무조건 확보하려는 선점적인 조치가 이뤄지면서 소비자가만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배추의 경우 올해 산지가 1kg당 1211원인데 1포기당 책정되는 소비자가는 522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배추 1포기당 무게는 2~3kg다.

사과는 산지 가격은 1kg당 3885원인데 중도매인 상회에서 소상공인 및 필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소비자 가격은 8323원으로 2.14배 차이가 났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농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불안 등 유통 환경 변화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지 가격이 소비자가로 즉각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착시’에는 심리적 요인도 있다. 전기·교통비 등 생활비 전반이 오르는 가운데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지역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과대 인식되는 것이다.

김수미(여·47)씨는 “옛것제에 상추사러 갔는데 20장도 안 든 것 같던데 1봉지에 4000원 돈 하더라. 물가가 비싸니까 뭐 사고 싶어도 많이 안 사진다. 사려고 했다가 봐서 비싸니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윤선미(여·24)씨는 “우리 집에서 주로 먹는 게 사과인데 요즘 너무 올라서 아깝다. 예전에는 사과 한봉지에 7~8000원에 샀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갔을때는 막 1만2000원 이라서 놀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민 입장에서는 비료값과 인건비 상승분이 수매당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농사 지어봤자 남는 게 없다”는 한탄이 반복되고 있다.

무안군에서 배추, 버, 마늘, 쪽파 등을 재배하는 고송자(여·76·전남도여성농민회장)씨는 “이제는 하루 인건비가 14만~15만 원으로 오르고 외국인 근로자도 편한 일만 찾아 가곤 한다. 현장은 사람이 없어 죽을 판이다”며 “농산물 팔아 손에 1만 원 잡히면 거기서 100원이라도 남아야 하는데 남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고씨는 “우리 아들도 오늘 아침에 농협자재구매 카드로 비료 사고 약 사고 그랬는데 이자가 6%란다. 1년 지나면 6%를 줘야 하는데 그만큼 농사가 잘 안되면 빚만 생기는 거다. 은행이랑 대형마트만 배부르고 농민들은 죽고 있다”고 덧붙였다.

벼 농사를 짓는 농민들 사이에서는 수매가격과 시장 시세와의 괴리도 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생산비는 오르고 일손은 없는데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도 못하면 농민들은 힘들 수 밖에 없다. 현재 쌀값이 수확기임에도 농민들이 받는 수매가는 낮게 책정되고 있다. 결국 농민이 제대로 된 값을 받고,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시세를 반영한 공정한 수매가격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꽃길을 걸어요 16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첨단대교 아래 영산강변에 코스모스가 만개한 가운데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보훈부, 5·18묘지에 ‘조화’ 2만1100송이…환경파괴 어쩌나

6년간 폐기물만 4.2t…‘조화반입 금지’ 영락공원 등과 대조적

국가보훈부가 국립5·18민주묘지에 놓은 꽃 대부분이 플라스틱 조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광주 영락공원, 망월묘지공원 등을 운영하는 광주도시공사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전면 금지한 것<광주일보 10월 2일 10면>과 달리, 5·18민주묘지에서는 버섯이 조화가 반복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시 을)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최근

6년여 동안 국립5·18민주묘지에 놓아두기 위해 2만 1100여송이의 조화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00송이, 2021년 4800송이, 2022년 2000송이, 2023년 3900송이, 2024년 4200송이, 2025년 7월까지 2200송이 등이었다. 총 구입 비용은 3278만원에 달했다.

조화 5000여송이의 무게가 1t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6년 동안 4.2t의 조화가 폐기물로 버려진 것이다.

반면 생화는 해마다 300여송이씩, 6년 동안 1800송이를 구입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조화 구입량의 11분의 1 수준으로, 6년간 투입한 구입 비용은 225만원 뿐이었다. 같은 기간 보훈부가 전국 국립묘지에서 구입한 꽃은 총 61만 3511송이로, 이 중 87%인 53만 7257송이가 조화였다.

강 의원은 “보훈부는 관할 전국 국립 묘지 조화 구매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화 구매 및 조화 반입 금지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잔! 소금 페스티벌’ 17일 목포서 개막

전시·판매·공연·체험 등 다채

2025 소금박람회 ‘잔! 소금 페스티벌’이 17일부터 사흘 간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로 17회째인 소금박람회는 국내 최대 천일염 산지인 전남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천일염 행사로, 전시·판매 뿐 아니라 축하공연, 다양한 체험형 행사도 마련된다.

행사장에는 K-SALT·생활관, 미식관, 체험관, 치유관 등이 운영되면서 천일염의 생산과정, 생활 속 천일염 활용 제품을 소개하고 소금팝콘·소금쿠키·소금아이스크림 등도 맛볼 수 있다. 소금시계·소금전구·소금물 자동차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소금을 활용한 놀이터와 족욕 등도 체험해볼 수 있다.

이원일 셰프가 선보이는 천일염을 활용한 유자 메이플 소금 팬케이크 쿡킹쇼(18일), 최태성 강사가 들려주는 ‘역사 속 소금이야기’ 인문학 콘서트(19일) 등의 행사와 천일염 퀴즈쇼, 천일염 100g 무게 맞추기, 천일염 쌓기 등 천일염 상품을 걸고 펼치는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축제를 통해 전남 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찾는 ‘K-SALT’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주말 비 그치고 ‘쌀쌀’

주말 사이 광주·전남에 비가 오다 그친 뒤, 다음 주부터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새벽 사이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에 10~40mm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18일 오전부터 그치겠으나,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질 전망이다.

주말인 19일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아침최저기온은 14~19도, 낮최고기온은 24~26도를 보이겠으며, 18일 아침최저기온은 17~21도, 낮최고기온은 20~24도를 보이겠다. 19일도 아침최저기온 13~

18도, 낮최고기온도 21~24도 수준이겠다.

20일부터는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돼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아침최저기온은 8~14도, 낮최고기온은 16~22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 이후 기온이 크게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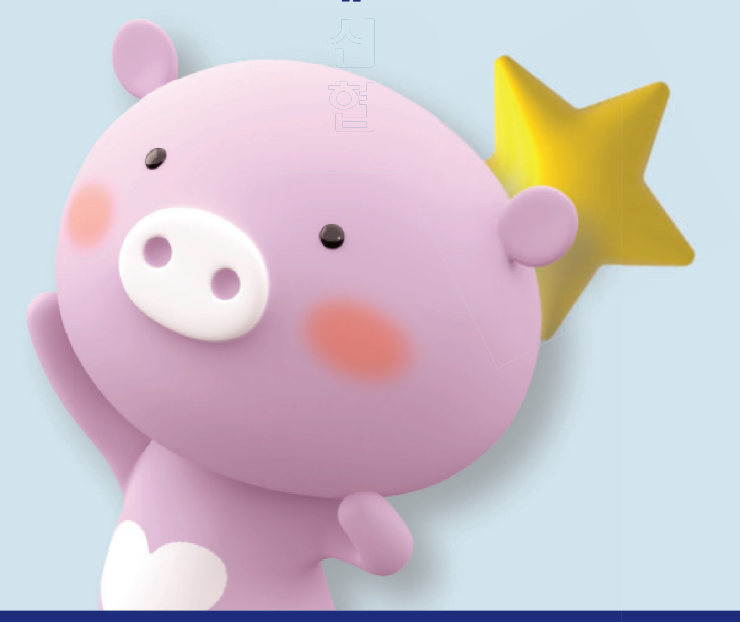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